

Learning Guide

| WORKBOOK 1 지문 연습하기: 영문과 우리말 해석을 읽으며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18번

WORKBOOK 1 지문 연습하기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Dear Mr. Kelly,

My name is Mark Smith, and I am the manager of Lomos Tours.

I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for your **continued trust** and **loyalty**.

Next year, as part of a new **promotional** campaign, Lomos Tours will be **airing** an **advertisement**.

We plan to **include** the experiences of some of our most **valued clients**.

Since you traveled with us last summer, I **would like to** kindly ask if you would **be willing to** share a few words about your experience.

Your feedback would be **invaluable** in helping us **promote** our services.

A member of our team will **be in touch with** you **shortly**.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ntributions.

Warm **regards**,

Mark Smith

친애하는 Kelly 씨께,

제 이름은 Mark Smith이며, 저는 Lomos Tours의 매니저입니다.

저는 당신의 **지속적인 신뢰**와 **충실**에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Lomos Tours는 **광고**를 **방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몇몇 **고객님들**의 경험을 **담을** 계획입니다.

당신은 지난여름에 우리와 함께 여행하셨기에, 저는 당신의 경험에 대해 몇 마디 말씀을 **기꺼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가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우리 팀의 직원 한 명이 **곧 연락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기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Mark Smith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After finishing my shopping, I walked out of the **grocery** store and **headed to** the **spot** where I'd parked my car.

But it wasn't there. I wasn't the kind of person to forget where I'd **parked**.

I knew I was in the **right** place—so where was my car?

I **looked around**, but nothing **made sense**.

Not knowing what to do, I called my husband at home and said, "My car is **missing**! I can't find my car."

I heard him **laughing** on the other end of the line.

"Your car is here outside the house! You took mine today, **remember**?"

I **turned around**—and there it was.

I **couldn't help but** laugh at myself.

With a **sigh** of **relief**, I walked over to the car.

Everything was fine **after all**.

쇼핑을 마친 후에, 나는 **식료품** 가게를 걸어나가 내가 차를 주차했던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없었다. 나는 내가 **주차했던** 장소를 잊어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정확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면 내 차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가 **없어졌어요**!
나는 차를 못 찾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전화기의 반대편에서 **웃는** 것을 들었다.

"당신의 차는 여기 집 밖에 있어요! 당신은 오늘 내 차를 가져갔어요. **기억나죠?**"

나는 **돌아보았고**,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안도의 **술**을 내쉬며, 나는 차로 걸어갔다.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았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is communication.

It's easy to connect with someone and then let the relationship get stuck due to a lack of follow-up.

To keep the connection alive, make a conscious effort to stay in touch.

This doesn't mean constantly reaching out with requests or updates but rather maintaining a friendly and consistent line of communication.

A simple message to check in or share something of value can go a long way in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For example, if you come across an article or resource that you think might interest a connection, share it with them, even if you haven't spoken in a while.

This shows that you're thinking of them and are invested in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소통이다.

누군가 와 친해지고 나서 추후 연락 부족으로 인해 그 관계가 정체되도록 내버려 두기 쉽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락하고 지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이는 요청이나 최근 소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근하고 일관된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부를 확인하거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간단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다고 여기는 기사나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면,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그것을 공유하라.

이는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를 지속하는 데 노력을 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Currentl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egraded areas have been promoted as improving the wellbeing of residents and solving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However, such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 ethnic communities and/or low-income households can create an urban green space paradox.

The creation of new, high-quality green spaces can increase attractiveness, making these neighbourhood more desirable.

By contrast, the cost of housing can rise, and residents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rent.

This results in the exclusion or displacement of the poor neighbourhood's residents, who were intended to benefit from th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new green space.

In turn, the residents may only be able to afford to live in a similar degraded neighbourhood to the one they left, with low access to green infrastructure.

현재, 낙후된 지역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거주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소수민족 공동체들 및/또는 저소득 총 가구에서 그러한 환경 개선은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양질의 녹색 공간의 조성은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 지역을 더 탐나게 만든다.

대조적으로, 주거비가 오를 수 있고, 거주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는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의 배제 혹은 퇴거를 야기하는데, 그들은 새로운 녹색 공간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도록 의도되어 있었다.

결국, 그 거주자들은 녹색 사회 기반 시설에 접근성이 낮은 채로, 그들이 떠났던 곳과 비슷한 낙후된 지역이나 거주할 형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An increasing awareness of our effect on the ocean is slowly seeping into the public agenda, dragging behind it a conversation that is decades overdue.

But this conversation faces a massive obstacle.

It's almost impossible to discuss what to do about something changing if you don't initially know how it works.

If a doctor tells a patient that they have a problem with their kidneys, the patient probably already has at least a vague idea about where their kidneys are and what they're up to.

They learned about that part of their own personal life-support system at school.

But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s.

When we see a news story about the long-term decline in the numbers of krill in the Southern Ocean, it sounds generally like a bad thing.

But there's far more to it than the risk of whales going hungry.

Krill are a part of the ocean engine.

We need to understand at least some of the context before we can discuss the chang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해양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한 커지는 인식이 공공 안건으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수십 년 동안 미뤄 온 대화를 그것 뒤로 끌고 온다.

하지만 이 대화는 거대한 장애물을 직면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애초에 알지 못한다면 변화하는 어떤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환자는 아마도 신장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적어도 막연한 이해는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자기 개인의 생명 유지 체계의 그 부분에 대해 배웠다.

하지만 해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남극해 크릴 수의 장기적 감소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볼 때, 일반적으로 그것은 나쁜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래가 굶주리는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크릴은 해양 엔진의 일부이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맥락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Rome was said to have been a **melting pot** from the very start.

The historian Livy **claimed** the city's **original population** **was comprised of immigrants flooding** in from all directions, attracted by Romulus's **deliberate policy** of **nondiscrimination**.

It was this **initial** openness, Livy **asserts**, that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later **strength** and success of the city.

Romans described their city as **multicultural** in the **generations** after its foundation.

Tradition held that only a **minority** of the city's **legendary** kings were Roman-born, with the others all arriving as immigrants before being chosen for the **throne** for their **virtues** and **merits**.

As the **empire expanded** across three **continents**, Rome eagerly **adopted** new cultural influences and **absorbed incoming** groups—perhaps a little too **eagerly** for some, who, like the **poet** Juvenal, **complained** about the **rapid rate** of cultural change.

로마는 맨 처음부터 용광로였다고 일컬어졌다.

역사학자 Livy는 그 도시의 원래 인구가 Romulus의 의도적인 비차별 정책에 의해 이끌려 사방에서 몰려든 이민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Livy가 주장하길, 그 도시의 이후의 힘과 성공을 위한 토대를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초기의 개방성이었다.

로마인들은 도시의 설립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들의 도시를 다문화적이라고 묘사했다.

전통적으로, 그 도시의 전설적인 왕들 중 소수만이 로마 태생이었고, 나머지 왕들은 그들의 덕성과 공로로 왕위에 선택되기 전에 모두 이민자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제국이 세 대륙에 걸쳐 확장되면서, 로마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영향을 채택하였고, 유입되는 집단들을 흡수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소 지나치게 적극적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시인 Juvenal처럼 그 급격한 문화 변화 속도에 대해 불평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and the fundamental forces in our universe have very precise forms and values.

This means that, if they were only very slightly different, lif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For instance, the precise value of gravity has enabled our universe to arise by permitting the aggregation of dust and gas particles to proto-stars around which planets later came to orbit, including the Earth around the Sun.

If the value of the electron had been ever so slightly larger or smaller, chemistry, as we know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and life, which is based on organic chemistry, could not have started.

The universe was not designed for us to evolve, we have no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however,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allowed advanced life to evolve.

물리학 법칙들과 **상수들** 그리고 우리 우주의 **근본 힘들**은 매우 **정밀한** 공식의 형태들과 **값들을** 가진다.

이는, 만약 그것들이 **아주** 약간만 다르다면, 생명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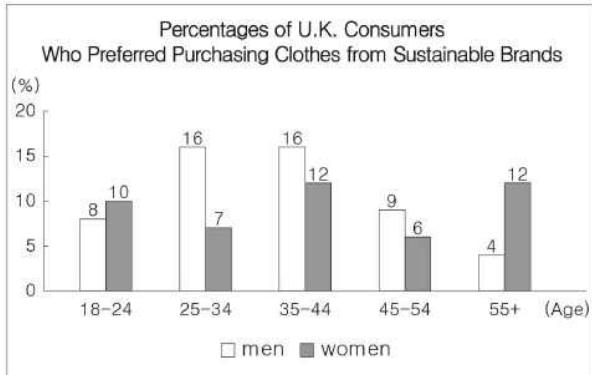
예를 들어, **중력**의 정밀한 값은 태양 주위의 지구를 포함하여 **행성들이** 나중에 그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원시 항성들로** **먼지**와 가스 **입자들이** **응집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우주가 생겨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만약 **전자**의 값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크거나 작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화학 반응**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유기 **화학 반응에 기반을 둔** 생명체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우리는 우주에서 어떠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학 법칙들과 상수들은 **고통**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도표 생략]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U.K. consumers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by age and gender in 2020. ①In each of the five age groups, the percentage of women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was over 5%. ②The 25-34 and 35-44 age groups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men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③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en and women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in the 25-34 age group was larger than that in the 18-24 age group. ④In the 45-54 age group, the percentage of men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was more than twice that of women who did so. ⑤The percentage of men who preferred purchasing clothes from sustainable brands in the 55 and up age group was 4%, which was the lowest among the five age groups.

위 그레프는 2020년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영국 소비자들의 비율을 보여 준다. 다섯 개 연령 집단들 각각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여성의 비율은 5%를 넘었다. 25-34세와 35-44 세 연령 집단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남성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5-34세 연령 집단에서의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비율 차이는 18-24세 연령 집단에서의 그것보다 컸다. 45-54세 연령 집단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남성의 비율은 그렇게 했던 여성의 그것보다 두 배 넘게 컼다(→45-54세 연령 집단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남성의 비율은 그렇게 했던 여성의 비율의 두 배보다 작았다). 55세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 남성의 비율은 4%로, 다섯 개 연령 집단들 중 가장 낮았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Dalip Singh Saund was an Indian-born American **politician**.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Punjab in India, he moved to the U.S. to **attend graduate school**.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1924 but could not get a job because of his **nationality**.

The next year, he began farming in Imperial Valley, but he was not able to buy land without U.S. **citizenship**.

Dalip developed an interest in **politics** and he often **spoke out** on Indian and political topics.

He went to Washington, D.C. and **promoted** a **bill** that would allow Indians to become U.S. citizens.

The bill was passed in 1946, and three years later Dalip **received** U.S. citizenship.

He later became the first Asian to be **elected** to the U.S. **Congress**.

Dalip Singh Saund는 인도에서 태어난 미국인 **정치인**이었다.

인도에서 University of Punjab을 **졸업한** 후에, 그는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1924년에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자신의 **국적** 때문에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다음 해에, 그는 Imperial Valley에서 농사를 시작했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어 땅을 구입할 수 없었다.

Dalip은 **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켰고 그는 종종 인도 및 정치 주제에 대해 **발언 했다**.

그는 Washington, D.C.에 가서 인도인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홍보 했다**.

그 법안은 1946년에 통과되었고, 3년 후에 Dalip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후에 미국 **의회**에 **당선된** 최초의 아시아인이 되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안내문 생략]

2025 Britt High School Character Design Contest

Britt High School holds our first Character Design Contest. Join the contest and create a character that symbolizes our school.

Submission

- Deadline: October 24, 5 p.m.
- Entries should be sent by email to cdcbritt@bhs.edu.

Judging Criteria

- Concept
- Creativity
- Illustration

Prizes

1st prize Number of winners: 1

Prize (per winner): \$50 gift card

2nd prize Number of winners: 2

Prize (per winner): \$30 gift card

3rd prize Number of winners: 3

Prize (per winner): \$10 gift card

※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our school's website on October 31. No personal contact will be made.

2025 Britt 고등학교 캐릭터 디자인 대회

Britt 고등학교는 우리의 첫 번째 캐릭터 디자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 참여하여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드세요.

제출

- 제출기한: 10월 24일 오후 5시
- 출품작은 cdcbritt@bhs.edu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

- 콘셉트
- 창의성
- 일러스트레이션

상품

1등상 수상자 수: 1

상품 (수상자당): 50달러 기프트 카드

2등상 수상자 수: 2

상품 (수상자당): 30달러 기프트 카드

3등상 수상자 수: 3

상품 (수상자당): 10달러 기프트 카드

※ 수상자는 10월 31일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발표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연락은 없을 것입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안내문 생략]

2025 Robin Hood Festival

The Robin Hood Festival is coming soon! This annual festival aims to celebrate Robin Hood, who has made Shearwood Forest famous around the world.

When & Where

- October 17-19, from 10 a.m. to 6 p.m.
- Shearwood Forest Park

Events

- Shoot a bow like Robin Hood. (only available for ages 6 and above)
- Take pictures with Robin Hood and other festival characters.

Notes

- Free shuttle bus will be provided.
- A reservation is not required for any event.

※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rbfestival.org.

2025 Robin Hood 축제

Robin Hood 축제가 곧 다가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Robin Hood를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는 Shearwood Forest 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 어디서

- 10월 17일-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 Shearwood Forest Park

행사

- Robin Hood처럼 활을 쏘십시오. (6세 이상만 참여 가능)
- Robin Hood와 축제의 다른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유의 사항

- 무료 셔틀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 어떤 행사에도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www.rbfestival.org 를 방문하십시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Human beings have evolved to make the most of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in ways that are subtle and complicated.

When we change our diets, especially when we do so quickly, we are effectively conducting huge experiments in nutrition.

We ought to have more humility.

Nutritional science is still young and there is so much we do not know.

If we have eaten certain foods in certain ways for millennia, we should assume until it is proven otherwise that there is probably a good reason why.

Traditional foods that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 should generally be chosen over highly processed ones that do.

We should assume that traditionally made fatty blood sausages are preferable to lean, factory-made salamis; that spoonfuls of honey are superior to sprinkles of sweeteners.

Witnessing how poorly traditional societies are faring as they undergo a nutrition transition should make those who have already completed it question whether their diets have moved too far.

인간은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들로 최대한 이용하도록 진화해 왔다.

우리가 우리의 식단을 바꿀 때, 특히 우리가 매우 빠르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양 섭취에서 거대한 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

영양학은 여전히 역사가 짧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만약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특정한 방식들로 특정한 음식들을 먹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르게 증명될 때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에 딱 들어맞지 않는 전통 음식이 딱 들어맞는 매우 가공된 음식보다 우선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 많은 블러드 소시지가 지방이 적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살라미 소시지보다 더 선호되며, 그리고 몇 스푼의 꿀이 소량의 감미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추측해야 한다.

전통 사회들이 영양 전환을 겪으면서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이미 그것(전환)을 완료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While convenience and technology are **crucial**, they are not the only **factors** driving Gen Z's **financial** decisions.

This generation is **incredibly values-driven**, and they want to **bank** with **institutions** that **match** their personal beliefs and values.

Transparency is **vital**.

Gen Z is **skeptical** of large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hat **lack accountability**.

They have grown up in a world where information is freely **available**, and they expect **complete** transparency from the brands they support.

Banks, for example, must clearly communicate **fees**,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

Moreover, **ethical** banking **practic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Gen Z **cares about** the environment, social **justice**, and the ethical **implications** of their financial decisions.

They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 supporting businesses that match their values, and **ensuring** that their money is not being used to **fund harmful practices**.

Banks that offe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are commit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ll **attract** Gen Z's **attention**.

편리함과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Z세대의 **재정상**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인들**은 아니다.

이 세대는 **매우 가치 지향적**이며,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기관**과 **거래하기**를 원한다.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Z세대는 **책무성**이 **부족한** 대규모의 **기업**과 기관에 **회의적**이다.

그들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자라 왔고, 자신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그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수수료**, **약관**, **조항**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게다가, **윤리적인** 은행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Z세대는 환경, 사회 **정의**, 그리고 자신의 재정상 결정의 윤리적 **합의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투자,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돈이 **유해한 관행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실히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은행은 Z세대의 **관심을 끌** 것이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Myths aren't only stories.

For example, a well-known myth that **persists** today is the **supposed** high **iron content** in **spinach**.

This is a **legend** that **dates back to** 1890 and **originates** from a simple **miscalculation** by **physiologist** Gustav von Bunge.

He **accurately determined** that 100 grams of spinach **contained** 35 milligrams of iron but he was **analyzing** dried spinach, which held ten times more iron than the same amount of **fresh leafy greens**.

Although the error was **swiftly corrected**, the **correction** was just as **swiftly** forgotten.

The myth had **taken hold**.

Popeye, who gained superhuman strength from the leafy greens and **defended** himself with iron **fists**, contributed to its **endurance** and even today, some nearly 150 years later, parents the world over use this **tale** to try to **persuade** their children into eating the healthy vegetable.

통념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잘 알려진 하나의 통념은 **시금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높은 **철분 함량**이다.

이것은 1890년 **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리학자 Gustav von Bunge의 단순한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그가 시금치 100그램이 철분 35밀리그램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냈**지만, 그는 말린 시금치를 **분석하고 있었**고, 그 것은 같은 양의 **말리지 않은 푸른잎채소**(시금치)보다 열 배 많은 철분을 갖고 있었다.

그 오류는 **빠르게 수정되**었지만 그 **수정**은 그만큼 **빠르게** 잊혀졌다.

이 통념은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Popeye는 푸른잎채소(시금치)에서 초인적인 힘을 얻고 강철 **주먹**으로 자신을 **방어했**기에, 그것의 **지속**에 기여했고, 약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한 그 채소를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이용한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The **technical term** often used to **describe** animals' **judgement** of numbers is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

What it does not provide is **precision**.

It shows — and this is the same in every species tested — a **characteristic** pattern of **errors**, with **discrimination** becoming less **accurate** as the **quantities** get bigger.

Rhesus monkeys can **tell** one **from** two, two from three, three from four, four from five ... but start to fail from five upwards.

Rats that learned to press a lever a given number of times, from four up to twenty-four, became **markedly** less and less **precise** in their responses as the number increased: by the top end of the range they **would mere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

It is a **common observation** that when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number sense, the size of the numbers **matters**.

동물들의 수에 대한 **분별력**을 **기술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어림' 수 짐작 능력'이다.

그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확성**이다.

그것은 **수량**이 더 커질수록 **판별**이 덜 **정확**해지는 **특징적인 오류** 패턴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실험된 모든 종에서 동일하다.

붉은털원숭이는 1과 2, 2와 3, 3과 4, 4와 5는 **구별할** 수 있지만, 5 위로는 실패하기 시작한다.

네 번에서 스물네 번까지 주어진 횟수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했던 **좌**는 숫자가 커질수록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점점 덜 **정확해**졌다. 그 범위의 상한선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단지 목표**(숫자) 주변에 퍼져 있는 숫자들을 **산출하곤 했다**.

동물의 수 감각의 정확성을 측정할 때,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관찰**이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Despite the cultural trope depicting emotions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cognition—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is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shapes the emotions we experience; then those emotions echo back to influence how we think.

For instance, if you walk into a test thinking you are bad at taking tests, your anxiety will be increased.

Then you don't feel good about your performance on the test, and that becomes evidence for continuing to *think* that you're bad at test taking.

In this way there'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allows us to adjust difficult emotions by changing the way we think.

By thinking differently—I get nervous sometimes,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or that nervous feeling is jus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it means I'm ready—you can work tho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감정을 합리적인 사고의 반대로 묘사하는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일컫는 것, 즉 인지는 사실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은 반향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것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며 시험을 보려 걸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불안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것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속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감정과 인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인지와 감정의 이러한 양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나는 때때로 긴장하지만, 여전히 시험 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혹은 '그 긴장되는 느낌은 단지 흥분과 기대이며, 그것은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경로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What is the **Capabilities Approach** (CA), and why would lawyers **passionate** about animal **justice care about** it?

It is easy to **say** what it is not.

The CA does not **rank** animals by **likeness** to humans or seek special **privileges** for those considered most "like us," as do some other popular **theoretical** approaches.

The CA has **concern** for the finch and the pig as much as the whale and the elephant.

And it **argues** that the human form of life is simply **irrelevant** when we think about what each type of animal needs and **deserves**.

What is **relevant** is *their own forms of life*.

Just as humans seek to be able to enjoy the **characteristic** goods of a human life, so a finch seeks a finch's life and the whale a whale's life.

We should **extend** ourselves and learn, not **lazily picture** animals as lesser humans, seeking a life sort of like our own.

According to the CA, each **sentient creatur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flourish** in the form of life characteristic for that **creature**.

능력 접근법(CA)이란 무엇이며, 동물 **정의에 열정을 가진** 법률가들이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질까**?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쉽다.

CA는 다른 널리 퍼진 **이론적 접근**들이 그려하듯, 동물들을 인간과의 **유사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거나 가장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여겨지는 동물에게 각별한 **특권**을 부여 하려 하지 않는다.

CA는 고래와 코끼리에게만큼이나 핀치와 돼지에게도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각 종류의 동물이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그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관련이 있는 것은 '그들 고유의' 삶의 형태이다.

꼭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고유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핀치는 핀치의 삶을, 고래는 고래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확장하고 배워야 하며**, 동물들을 열등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추구한다고 **성의 없이 상상해서는 안 된다**.

CA에 따르면, **지각 능력이 있는** 각각의 **생명체**는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삶의 형태로 **번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Social media serves as an important context to facilitate autobiographical remembering.

Personal events posted on social media platforms are better remembered and less forgotten than those not posted, independ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ents.

This may be because sharing memories online allows individuals to rehearse and make sense of what happened, thus facilitating long-term memory retention.

Online feedback such as comments and likes as well as technological features such as algorithms and periodic reminders can further serve as memory cues for the posted event details.

As a result, event details shared on social media are likely stabilized and remembered over time, whereas those not shared may become inaccessible or forgotten.

소셜 미디어는 자전적 기억을 촉진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개인적 사건들은 그 사건들의 특성과 무관하게, 게시되지 않은 것들보다 더 잘 기억되고 덜 잊힌다.

이것은 온라인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개인이 일어난 일을 되풀이하고 이해하도록 해서 장기 기억 유지를 촉진하기 때문일 수 있다.

알고리즘과 주기적인 알림과 같은 기술적 기능들뿐만 아니라, 댓글과 좋아요와 같은 온라인 피드백도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 단서로 한층 더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사건 세부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기억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공유되지 않은 것들은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잊힐 수 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Multisensory experiences are a central part of our everyday lives, yet we often take them for granted, especially when our senses function normally or are corrected to normal with aids like glasses.

However, closer inspection to any, even the most ordinary experiences, reveals the remarkable multisensory world in which we live.

Consider the experience of eating a regular meal.

At first, it may seem like an ordinary experience, but it is actually a fusion of the senses.

We first eat with our eyes, but we are also exposed to countless sensory signals th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such as food textures, tastes, and smells.

And it does not stop there.

Even the sounds that come both from the atmospheres in which we eat and our interactions with the food (such as chewing) and the tools we use to e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다중 감각 경험은 우리 일상생활의 주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특히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안경과 같은 보조 도구로 정상으로 교정될 때 그것들을 종종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어떤, 심지어는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다중 감각 세계를 보여 준다.

일상의 식사를 하는 경험을 생각해 봐라.

처음에는, 그것이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감각들의 융합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눈으로 식사하지만, 또한 음식의 질감, 맛, 냄새와 같이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도 노출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식사하는 상황과, 음식(씹기)이나 우리가 식사에 사용하는 도구와의 상호 작용들 다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As children, the **principle** of opposites is **foreign**.

Children **perceive** words and their meanings **separately** from each other.

It is only in later development that we understood that **individual** words **directly connect** to **one another**.

For many children, for instance, it is not clear that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

A **vivid** example of this can be seen when children learn to ride a bicycle.

If parents tell their child "Don't go to the left," they will often find that the child will continue riding straight ahead and not **automatically** turn to the right.

The same **applies** to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Yes' and 'No' as perceived by parents.

When we were children and were told, for example, "No, don't eat with your hands," we were **confused** and didn't know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Our **confusion** was about whether we should continue eating or not and if so, how?

Only later did we **recognize** the connection and understand that we should continue eating, but not with our hands but with a fork or a spoon.

어릴 때, 반대의 원리는 낯설다.

아이들은 단어들과 그 의미들을 서로 **분리** **해서 인식한다**.

우리가 **개별**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나중의 발달 단계가 되어서이다.

예를 들어, 많은 아이들에게,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의 **생생한** 사례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 보여질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말하면, 부모는 아이가 곧장 앞으로 계속 가고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것이다.

같은 원리가 부모가 인식하는 '예'와 '아니'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 예를 들어, "안 돼, 손으로 먹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웠**고, 우리 부모가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우리의 **혼란**은 계속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만약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그 연관성을 인식했고, 우리가 손이 아니라 포크나 숟가락으로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Humans are not the *most social* animal.

Ants, bees, and termites put humanity to shame on many metrics of sociality.

A wide variety of relatives live together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and collectively care for their young.

But while insect colonies are impressively social places, it'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Bees always build hexagonal hives, ants march in lines, and termites move in zigzag formations.

These patterns recur predictably because they are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and propelled pheromonally.

We humans are more free, less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so our social patterns can be more diverse and dynamic.

Every group dances a slightly different dance, and these choreographies change across generations.

We still think and act in ways that are in harmony with others around us, but it is through patterns that are more shaped by nurture, not just nature.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다.

개미, 벌, 그리고 흰개미는 많은 사회성 측정 기준에서 인류를 부끄럽게 한다.

매우 다양한 동족들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동으로 함께 살고 집단적으로 그들의 어린 새끼들을 돌본다.

그러나 곤충 군집들이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인 반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종류가 아니다.

벌들은 항상 육각형의 벌집을 짓고, 개미들은 줄지어 행진하며, 흰개미들은 지그재그 대형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패턴들은 그것들이 유전적으로 긴밀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페로몬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게 반복된다.

우리 인간은 더 자유롭고, 유전적으로 덜 긴밀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패턴들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

모든 집단은 약간 다른 춤을 추는데 이러한 안무들은 세대에 걸쳐 변한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성만이 아니라 양육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되는 패턴들을 통해서이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Those who purchase the goods of a company are called customers.

Individuals who purchase goods for personal use are called consumers: beings who consume.

Therefore, companies have invented multiple ways to ensure that their customers consume the produced items in larger and larger quantities and more and more frequently.

Those who sell food have an easy time, for food is literally consumed, so there is always a need to purchase new food.

But with more permanent things, companies must invent reasons for their customers to continue to consume them.

One approach is to make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 outdated by convincing them that it is no longer fashionable.

The entire fashion industry is built to convince people that fashion matters, so they must purchase new clothing, even though the old is still perfectly functional.

Fashion today extends to far more things than clothes: automobiles, mobile phones, computers—the list is extended indefinitely, limited only by the limits of the creative minds of the marketing divisions of companies.

어떤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고액이라 불린다.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즉 소비하는 존재라 불린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들이 고객이 생산된 물품을 반드시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소비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왔다.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수월한 편인데, 왜냐하면 음식은 말 그대로 소비되므로,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필요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영구적인 물건의 경우, 기업들은 고객이 그것들을 계속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 가지 접근법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다고 설득하여 그것을 구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전체 패션 산업은 기존 옷이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하더라도, 유행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새 옷을 사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오늘날 유행은 옷을 넘어 자동차, 휴대 전화, 컴퓨터 등 훨씬 많은 것들로 확장된다. 그 목록은 끝없이 확장되며, 다만 기업에 속한 마케팅 부서의 창의적 사고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Kivetz, Urminsky, and Zheng **partnered** with a café to test the **motivating** effect of **illusory progress** in an experiment.

Customers received a **reward** card that offered one free coffee after they'd bought ten.

While half of the customers received a card with ten **open slots**, the other half got a card with twelve **open slots**.

Yet the twelve-slot card had two **preexisting** "bonus" **stamps**, so, **strictly speaking**, these were **identical** reward programs.

Every customer who got a card needed to make ten coffee **purchases** (and **collect** ten stamps) to get their **free** coffee.

But the **appeal** of the free stamps was high.

People who thought they'd gotten a head start came back to the café more often, **filling** in their reward card more quickly than the others.

When the card came with two out of twelve slots already filled, it felt to **customers** like they were already 16 percent finished with the **goal** before they'd even started.

Believing they were closer to the reward, they were more **motivated** to reach the **finish line**.

According to the study above, customers were more driven to **complete** their goals when they **perceived** the reward as nearer.

Kivetz, Urminsky, Zheng은 **착각된 진전**이 주는 **동기 부여** 효과를 실험에서 시험해 보기 위해 한 카페와 **협력했다**.

고객들은 열 잔을 산 후에 무료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보상** 카드를 받았다.

고객들 중 절반은 열 개의 **빈칸**이 있는 카드를 받은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열두 개의 **빈칸**이 있는 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열두 칸짜리의 카드에는 이미 찍힌 두 개의 '보너스' **도장**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들은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었다.

카드를 받은 모든 고객은 무료 커피를 받기 위해 열 잔의 커피를 구매해야 (그리고 도장 열 개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무료 도장의 **매력**은 컸다.

자신이 앞선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카페에 더 자주 돌아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들의 보상 카드를 **채웠다**.

열두 칸 중 두 칸이 이미 채워진 채로 카드가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고객들**에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목표**의 16퍼센트를 끝낸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들이 보상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승선**에 도달하는 데 더 큰 **동기를 부여받았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이 더 가깝다고 **인식했을** 때 그들의 목표를 **완수하**도록 더 동기 부여되었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Creativity is the ability to **generate** **novel** and **valuable** ideas.

It **involves** **divergent** thinking, imagination, and a **willingness** to **experiment** and **take risks**.

While AI can be a powerful tool for creative efforts, it also carries the risk of limiting **originality** and **innovation**.

AI algorithms are trained on **existing** datasets, often **identifying** patterns and **trends** in past **creations**.

While this can be useful for generating new content in similar styles or **formats**, it can also **lead to derivative works** that lack **genuine** originality.

If artists and designers **rely** too heavily **on** AI for **inspiration** and content **generation**, they may find themselves **trapped** in a **cycle** of **imitation**, unable to break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he AI's training data.

Moreover, the **ease** with which AI can generate content can **discourage** the kind of **struggle** and experimentation that often leads to **breakthroughs**.

The creative process is often **messy** and **repetitive**, involving **numerous** failures and **setbacks**.

It is through these **challenges** that we **refine** our skills, develop our **unique perspectives**, and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possible.

If AI provides **instant solutions**, it can **bypass** this essential process of learning through **trial and error**, **ultimately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true creative **talent**.

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그것은 **확산적** 사고, 상상력, 그리고 **실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AI는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한 **독창성**과 **혁신**을 제한할 위험을 수반한다.

AI 알고리즘은 종종 과거의 **창작물**에서 패턴과 **경향을 식별하며 기존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훈련된다.

이것은 유사한 스타일이나 **형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모방적인 작품들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영감**과 콘텐츠 **생성을** 위해 AI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들은 AI의 훈련 데이터라는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방**의 **순환**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더욱이, AI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편의성**은 종종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노력**과 실험을 **방해할** 수 있다.

창의적인 과정은 종종 **골치 아프고 반복적**이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수반한다.

우리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고유한 관점**을 발전시키며,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혀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이다.

만약 AI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시행착오**를 통한 이 본질적인 학습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창의적 **재능**의 발달을 **방해한다**.

WORKBOOK 영문과 해석을 읽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When **billionaire** James Walker was once asked by a **journalist**, "Is there anyone richer than you?", he **replied**, "Yes, there is one young man I'll never forget."

He told the story of when he first met David at a New York **airport**.

Years ago, James was broke and **stuck** at the airport, **killing time** reading newspaper headlines at the **newsstand**.

One **headline** caught his eye, but he had no money to buy the paper.

Just then, David, working at the newsstand **noticed** James.

He asked, "**Would** you **like** to buy this, sir?"

But, James **hesitated**, saying he had no money.

David smiled and said, "Me, too. But I have enough for this. Take it as a **gift**."

Three months later, James, still **broke**, met him at the newsstand once more.

Again, David gave him a newspaper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억만장자 James Walker가 한 **기자**로부터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예,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New York에 있는 한 **공항**에서 David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년 전, James는 무일푼으로 공항에 **묶인** 채, **신문 가판대**에 있는 신문 제목들을 읽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기사 제목**이 그(James)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는 신문을 살 돈이 없었다.

바로 그때, 신문 가판대에서 일하고 있던 David가 James를 **발견했다**.

"선생님, 이거 사고 싶으신가요?"라고 그(David)가 물었다.

하지만, James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주저했다**.

David는 미소 지으며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것을 살 정도는 있어요. **선물**로 가져가세요."라고 말했다.

3개월 후, 여전히 **무일푼인** James는 그 신문 가판대에서 그를 다시 한번 만났다.

또다시, David는 그에게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신문 한 부를 주었다.

Years passed and James became a **wealthy businessman**, but he never forgot the young man he had met at the airport.

He found David **running** a small bookstore and visited him there.

He **introduced** himself, saying, "David, you helped me twice when you had almost nothing. I want to give you anything you wish."

He looked at him and said, "You can't **truly compensate** me." James asked, "Why not?"

David replied, "Because I gave to you when I had almost nothing. You're offering me something now that you have everything. That's just **generosity** at **convenience**. So, I can't **accept** your offer."

James **realized** that money doesn't make someone rich.

Remembering that **moment**, he said to the journalist, "It's the **willingness** to give even when you have very little that makes you wealthy. And so, David is the richest person I have ever met."

수년이 흘러서 James는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그는 그가 공항에서 만났던 그 청년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는 David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거기로 그를 방문했다.

그(James)는 자기를 **소개하**며, "David,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게 거의 없을 때 나를 두 번이나 도와주었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James)를 바라보았고, "당신은 나에게 **진정으로 보답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James가 "왜 할 수 없죠?"라고 물었다.

David는 "나는 가진 게 거의 없을 때 당신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저 **편의**에 따른 **관대함**일 뿐이죠. 그러니,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James는 돈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James)는 그 기자에게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가진 게 없을 때조차도 베풀려는 **의지**인 거죠. 그러므로, David가 제가 이제껏 만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